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③1

(구원사화)

■ 一沙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회 로울리)



渤海之家，是爲舊檀氏之遺裔，庶可斷焉。而今，夫！人然以小華自耀，肯認滿洲而爲親乎？彼等之於女眞，已以讎胡斥之，其於滿洲，寧怪其罵斥耶？且彼等之與朝鮮，角立者二向矣，而與舊胡相混者久矣，其勢安能復合而悔其久分耶？此不必長說也。

오호라! 하늘은 모습이 다르고 땅은 형세가 틀리며,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술이 제각각 인데, 자기의 능함을 버리고 어찌 위대롭지 않은 자가 있겠으며, 다른 사람에게 배운다고 그 본 바탕이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그러한 까닭에 조물주가 사물에 대해 두렵고 얹음이 없을 수 없고, 임금이 정치를 행함에 세번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됨을 찬탄하는 것이다. 지금에 무릇 애친씨(愛親氏)는 혁도아라(赫圖阿羅) 사람이다. 그 선조는 멀리 속진의 후에서 나왔고 그 백성들은 고구려와 발해의 무리 중에서 많이 이어받았으니, 이들이 남아 있는 단군의 후예가 됨을 거의 단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때때씩하게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라고 뽐내고 있으니, 만주가 우리와 친척됨을 긍정하고 인정하려 하겠는가? 저들 등이 여진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미 오랑캐로 여기고 그들을 배척하고 있으니, 우리가 만주를 대하며 욕하고 배척하는 것을 어찌 괴이하다고만 하겠는가! 또한 저들 등이 조선과 더불어 대립한 자가 이미 오래이며, 뜻 오랑캐와 더불어 서로 섞인자가 오래이니, 그 형세가 어찌 능히 다시 합치고서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음을 후회할 수 있겠는가! 이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至如太祖，努爾哈赤，驟然奮興於建州之地，率八旗之師而席卷滿洲，創金國而虎視東亞，乘明朝之衰而奪遼東，因流賊之亂而奄幽燕。於是，下髮之令，立國史之，禽永明而掃滿清內，服諸汗而併吞漠北。其政令之所出，八旗之所向，更無堅城，強壁矣。處處蜂起，復明之志士，曾不幾何而敗。蓋自有史以來，塞外諸族，入南漢土者，未有若此之強且盛者。我國之士，雖曰[日]夜以南漢之切齒，以國區東援壬辰之誼，欲向明而圖報，然，百年之內，余保，其必無是事矣。夫區區鴨水以南，數千里之地，衆寡之數，已自懸絕，而又自却女眞以爲胡，斥滿洲以爲虜，東遼于後，西繼于明，民復奚暇能盡其力哉! 然則，清之勢威，可謂益矣。然而其後孫，若至於燕漢俗而棄其本，操漢語而賦其詞，后吳姬而續越女，八旗之[之]兵而事田獵，紹堯舜之道而使其說，膏粱而飽華靡，則漢土好說之士，皆然以師傅自傲，夷狄鄙之，起而戮滿胡，復孰能禦之哉! 不出數百年，清必亡於善之士也。

태조 누루하치에 이르러 결연히 건주(建州) 땅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팔기병(八旗兵)을 거느리고 만주를 석권하였고, 금한국(金汗國)을 세우고는 동서를 호시탐탐 살피다가 명 왕조가 쇠퇴해진 틈을 타고 요동을 탈취하였으며, 도처의 도적들로 어지러운 틈을 타고 유연(幽燕)을

점거하여 버렸다. 이에 변발령을 내리고 국사관(國史)을 세웠으며, 영명(永明)을 사로잡아 나라안을 깨끗이 한 뒤에 뜻 우주머리들을 굴복시켜 막북(漠北)을 아우르니, 그 명령이 나아가고 팔기병이 향하는 곳에는 견고하고 강한 성벽이 없었기에 곳곳에서 벌떼 같이 명(明)의 부활에 뜻이 있는 선비가 일어났으나 다시 어찌할 수 없이 꺾이고 패하였다. 아마도 유사 이래 변방 밖의 뜻 종족 가운데 황제가 다스리는 한나라 땅에 들어온 것 중에서 이처럼 강하고도 번성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비록 밤낮으로 남한산성의 치욕에 대해 이빨을 갈면서 임진년에 신통치 않게 도움을 받은 의리로 명나라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지만, 내가 보장한데 1백년 안에는 기필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무릇 변변치 못하게 압록강 이남의 수천 리 땅에서 적은 숫자의 무리로 이미 스스로가 절박함에 매달려 있으며, 또한 스스로 여진을 오랑캐로 여겨 물리치고 만주를 호로(胡虜)로 여겨 배척하며, 동쪽으로는 왜놈들에게 손발이 묶인 채 서쪽으로 명나라를 그리워하고 자 하니, 백성들이 다시 어느 겨울에 능히 힘을 기를 것인가!

청(淸)의 위세는 가히 맹렬하다 할 것이지만, 만약 그 후손들이 한나라 풍속을 사모하여 자신들의 근본을 버리고 한나라 말로서 글을 짓고 오나라 계집과 월나라 계집을 황후와 비빈으로 앉히며, 팔기병을 몰아 밭에서 사냥하고 요순의 도를 이어 그 말을 치장하며, 고랑잔미를 배불리 먹으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에 만족해한다면, 곧 앵앵거리던 한나라 땅의 말하기 좋아하는 선비들이 모두 시골벽척하게 스스로를 거만히 스승이라 여기고 이적(夷狄)을 천하게 여기며 무리 지어 일어나 다그만 하겠는가! 또한 저들 등이, 누가 만주의 오랑캐들을 도록할 것인가, 누가 만주 그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겠는가! 수백 년이 지나지 않아 청나라는 반드시 떠들기 잘하는 선비에게 망할 것이다.

若天假余以再生，使置數百年之後，則余可服東服而操清語，跨駟馬而說清帝，談同祖，陳利害，與朝鮮併據遼滿，幽營之地，北誘野人而爲前驅，東聯倭而使挽其南鄙。夫！然後，朝鮮之強可復，而漢之慢可挫矣。不然者，今朝鮮之勢，滔滔日下，只管虛弱而不思奮勵，不出數百年，朝鮮必復敗於強矣，雖然孰能女之乎。

만약 하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수백 년 뒤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곧 나는 우리나라 뜻을 입고 청나라 언어를 구사하며 네 필의 말이 그는 수레에 올라앉아 청나라 황제를 설복하여 우리가 같은 조상임을 얘기하고 그 이해 득실을 나열할 것이니, 조선과 더불어 요만(遼滿)과 유연(幽燕)의 땅에 나란히 웅거하여, 북으로는 야인(野人)을 피어 선봉으로 삼고 동으로는 왜(倭)와 연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쪽의 천한 종족들을 휘어잡게 하라고 할 것이다.

무릇 그러한 후에야 조선의 강성함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한나라의 거만함은 좌절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조선의 형세가 저무는 해를 따라가듯 하기에 단지 허약함만을 돌보아서는 떨치고 나와서 힘을 쓰는 것은 생각도 못해 볼 것이니, 수백 년이 지나지 않아 조선은 반드시 강한 이웃에게 다시 패망할 것이니,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능히 지망하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위진남북조 시대에 북역에서는 문명태후 풍(馮)씨아주 유명한 인물이다. 그녀는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회질서를 잡는 방법으로 예(禮)의 실천을 특별히 강조하고 힘써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북역은 그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명태후도 개인적으로 무척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 환관인 부승조(符承祖)였다. 문명태후 풍씨는 원래는 북위의 포로로 잡혔다가 북위 문성황제의 귀인이 되었다가 황후가 되었다 사람이다. 그리고 9년이 지나서 문성황제가 죽자 태후가 된 사람이다. 그러나 이때에 겨우 22세였던 젊은 태후였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자유분방한 것이 유행하였던 시기가 젊은 과부인 문명태후는 미모의 남자 환관을 가까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헌문제가 문명태후 주반의 환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후에 헌문제는 병사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문명태후에게 독살되었다는 말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문명태후가 미모의 환관을 아끼는 것은 상상 이상의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

그러하니 문명태후에게 뽐낸 부승조의 권력은 하늘 높은 줄 몰랐다. 드디어 고급관직인 시중을 거쳐서 행정부 각 부서의 임무를 총관하는 직책인 지도조사(知都曹事)에 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었다. 문명태후는 자기가 아끼는 부승조에게 특별한 조서까지 내렸다. 이름하여 ‘불사(不死)’의 조서라는 것이다. 즉 죽음을 지어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가 받아들이는 뇌물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부(符)씨의 친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승조에게 달라 붙었다. 그리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그러나 단 한사람 그의 이모인 양(楊)씨만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녀는 요(姚)씨에게 시집을 갔으나 생활이 어려웠다.

부승조의 어머니는 그녀의 동생 양씨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다 못하여 때로는 의복을 내려 주었다. 오늘 날과는 달리 옷값이 귀한 시대에 옷을 내려 주는 것은 대



단한 일이었다. 더구나 다 낡은 옷을 입어야 하는 양씨에게는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 그러자 딱하게 생각한 부승조의 어머니는 억지로 동생에게 내려 주었다. 그러나 감히 거역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받아가지고 와서는 땅에 묻어버리고 입지 않았다. 그리고 “내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니 좋은 의복은 사람을 불안하도록 만듭니다.”라고 하였다.

또 노비를 내려주기도 했다. 노비는 당시에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재산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받지 않으면서 “나의 집은 먹을 것이 없어서 키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걸어 다니는 것을 보다 못하여 수레를 내려주고 타고 다니게 하였으니 역시 거절하였다. 그러자 부승조가 수레를 그녀에게 보내서 맞이하였으나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억지로 사람을 시켜서 겨안고 수레 위에 올라놓으면 크게 곡을 하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셈인가!” 이러하니 부승조는 그 이모를 “미련한 이모”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승조를 지망해 준 문명태후가 죽었다. 그러자 그의 부정한 것들이 밝혀지고 부승조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비록 문명태후가 내려준 ‘불사(不死)’라는 조서 때문에 죽지는 않았으나 그에게 불어서 먹었던 친척들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지은 죄에 따라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모 양씨는 특별사면을 받아서 무사하였다. 미련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권력이란 촛불과 같은 것이어서 밝은 것이지만 가까이 가면 타버린다. 여름에 모기 잡는 전등은 바로 타 죽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모기를 유인하는 도구이다. 권력도 마치 모기 잡는 전등이 아닐까? 권력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가? 아니면 이익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미련한가? 인생은 장거리 여행인데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

■ 역사기행

분화산(粉花山)을 바라보며

■ 향촌 권오창 (본원 지문위원)



다. 나의 조부이신 죽초(竹樵) (휘 태양(諱 泰陽) 공께서는 내가 장손(長孫)이라고 하여 무척 귀여워 하시고 늘 데리고 다니시었다.

출입시에도 따라다니는 재미가 있었고 동네 아이들이 죽초공에게 식전에 글 배우 올때에는 나는 사랑방에서 다른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보며 자랐다. 그때에 죽초공에게 직접 배울 수도 있었으나 죽초공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자기 손자는 목숨이 생겨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화산 밑에는 우리 선대의 선산이 있고 논과 밭과 산이 그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집안의 관할 구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공께서는 간혹 농담을 하셨는데 일제가 전지 군량과 일본 신민들을 위하여 미곡 공출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증산책의 일환으로 논에는 객토 사업을 실시 하였다. 그때에는 산 흙이나 밭 흙을 파서 일꾼들이 바지계에 지고 논에 갔다 부었다. 두구는 삼과 괭이가 전부였고 모두 인력으로 대체 되었다.

이때에 일하는 일꾼들을 위하여 고추장 콩나물 비빔밥 새참을 집에서 마련하였던 시절은 서울까지 완행은 10시간에서 12시간은 족히 걸렸고 검은 연기가 차창으로 스며들어서서 얼굴은 검게되고 흰 옷은 거스름이 물을 지탱하며 객실내에서 그때에는 물수건을 팔았다.

그때에 서울을 한번 갔다가 오며는 큰 벼슬이나 한것처럼 자랑과 이야기 꺼리가 생겼곤 하였다. 나는 나의 고향인 이곳에서 유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22일 현재)

■ 총재단회비

△권영달(부총재) 100만원

■ 중무위원회비

△권오현(음성 대종원) 20만원
△권태석(창원 동정공파) 20만원

소 계 40만원

■ 대의원회비

△권기순(대구 중윤공파) 10만원
△권태복(금천 서울) 10만원
△권홍기(청송 대종원) 10만원
△권재철(부산 북야공파) 10만원
△권창(시흥 추밀공파) 10만원
△권오중(안동 부호장공파) 20만원

(2014년 포함)

소 계 70만원

합계 210만원

받아어만 하였다.

그래도 밭 농사는 가뭄이 오지 아니하면 큰 지장은 없었다. 밭 농사는 작곡이고 배추 무 상추 등이다. 겨울의 식탁에는 김치가 주된 반찬이다. 저런 고등어 조기 명태 등이 있었으나 이런 것들은 제사가 지난 후이면 맛볼 수 있었고 돼지고기 쇠고기도 마찬가지였다. 접빈객시에는 도장에 감추어 놓았던 고기를 반찬으로 대용하였다.

계란은 좋은 반찬인데 사랑방 상에만 놓인다. 닭은 뜰에 놓아서 키우고 소는 집과 함께 달린 마구간에서 키웠다. 쇠죽은 아침에 일꾼이 꼭 먹고 일하러 나갈 때에는 일꾼이 각종 농기구를 챙긴다.

논과 밭을 가는 쟁기 썰레 지르마 운반 구 도끼 톱 낫 호미 가래 삽 등이었다.

죽초공께서는 밭이나 논에 가실때에는 나는 꼭 뒤따라갔는데 “하늘이 하는 일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다.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타 들어갈때에는 인력을 다하여야 하나 하늘에서 비가 와서 모두 해결되고 논이 물도 풍족해지고 여름에 잠마가 와서 찬방과 푹이 터져 물치면 이것은 인력으로 복구하여야 하는데 그때에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

여름에 계단을 신고 밭 푹이되면 풀베기가 다리를 찢고 새강 같은 풀이여 다리살을 상처서 쓰라림을 당했다. 그때에는 속같은 약초를 비벼서 상처에 문질러서 환부를 중화시키고 땅벌에 쏘였을 때에는 집에 와서 날 된장을 발라서 낫게 했다. (다음호에 계속)



칼럼

잘 쓰겠다는 욕심없이 손 가는 뒤를 쫓아 흰 종이와 검은 글씨가 놀게 뒷바라지 하는 것이 붓글씨의 무심필(無心筆)이라 한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다. 선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기쁘고 기이한 글을 보면 손으로 써보고 싶다.

좋은 글을 골라서 내심 즐겁게 꾸준히 100만자를 붓으로 쓰면 서예가가 아니라 서가(書家)라고 부를 수 있다. 붓으로 쓴 글씨만 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먹과 붓이 아니어도 손으로 쓴 글씨는 표정이 있고 마음이 담겨 있다. 글씨는 사람을 닮기 마련이다. 종이 위에 펼쳐진 영혼의 울림이다.

서예(書藝)는 한번 그으면 그것으로 끝인 덧집이 불가능한 예술이다. 일회

무심필(無心筆)

■ 毛村 權五福 (본원 편집위원)



때문이다. 이는 대나무를 그릴 때 가슴 속에 대나무 한 그루를 미리 심어 두는 것과 같다. 그래야만 대나무의 굳센 매듭을 응급하게 그을 수 있는 것이다.

나오는 향기, 책에서 나오는 기운, 서에는 가슴 속에 만권의 책(冊)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글씨는 그사람의 마음을 그려놓은 것이다. 글씨가 곧 그사람이다.

‘열개의 벼루와 천 자루의 붓’이 몽당봉으로 달아야 비로서 서가(書家)가 되는 것이다.

적이며 분명하고 확실하다. 색이라고 해봐야 흑 아니면 백. 쓰지 않을 때는 백색이고 쓸때는 흑색이다. 맑고 단순하고도 소박하다.

그러나 그 표현은 무궁한 예술이다. 붓글씨는 붓과 종이의 먹과 물에 따라 다르다.

또한 먹물의 농담, 즉 진한 것과 옅은 것에 따라 다르고 먹빛의 윤갈 즉 촉촉한 것과 마른 것에 따라 다르다. 더불어 붓을 권 위치와 밀고 당기는 힘에 따라 다르다. 같은 글씨는 어디에 도 없다.

행위는 일회적이고 단순하지만 글씨가 품고 있는 표정과 감정은 변화무쌍하다.

인간이 성숙해질 때 글씨도 무리의는다.쓰는 이의 마음이 먼저 젖어있기